

이투데이 ESG포럼 2023

“민간 ESG 생태계 조성 방안”

이투데이
프리미엄 경제신문

 LG화학  LS  코오롱  신한금융그룹  NH투자증권

이투데이 ESG포럼 2023

“민간 ESG 생태계 조성 방안”

2023. 04. 19 [WED] | 14:00~17:00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B2)

이투데이
프리미엄 경제신문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행사소개

2020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내 산업계의 ESG경영 열풍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으며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환경·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경영은 투자의 범위가 민간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새 정부 국정과제에 ESG를 포함하여 K-ESG 가이드라인과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하는 등 활발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으로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국내 ESG 공시제도 정비, 중소·중견기업 ESG 경영지원 강화, ESG 투자 활성화, ESG 정보·인력 지원체계 구축, 공공부문 ESG 선도 등 5대 정책 과제를 바탕으로 민간 중심 ESG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우리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경제 구축을 위한 밑거름을 다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ESG경영은 글로벌 대기업을 필두로 점차 확산되어가고 있지만, 체감이 힘든 중소/중견기업의 경우는 ESG경영의 필요성과 진입장벽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ESG경영 시대를 앞두고 공시제도 정비를 비롯하여 정부 지원정책,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도 ESG경영 도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민관이 합심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이투데이는 최근 국내 ESG경영 환경을 점검하고, ESG 생태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대응 방안들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정부의 정책 방향을 기반으로 한 민관의 분석과 계획을 통해 국내 ESG경영의 미래 모습을 모색하고 현실적인 민간 ESG 생태계 조성 방안들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사개요

행사명 | 이투데이 ESG포럼 2023

주 제 | 민간 ESG 생태계 조성 방안

일 시 | 2023년 4월 19일(수) 14:00~17:00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지하2층)

주 최 | 이투데이

후 원 |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프로그램

시간	세션	내용
13:30~14:00	세션	참석자 등록
14:00~14:02		개 회
14:02~14:10	인사말	김덕현 이투데이 대표이사
	축사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 1차관
	촬영	기념사진 촬영
14:10~14:15	Opening	윤동열 대한경영학회 회장
14:15~14:45	Session1	박세환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글로벌 ESG 공시기준의 변화와 대응
14:45~15:15	Session2	나수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15:15~15:45	Session3	강성부 KCGI 대표이사 ESG 투자의 현실적 접근
15:45~16:15	Session4	윤동열 대한경영학회 회장 ESG 전문 인력 지원체계 구축
16:15~16:45	Session5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 공공기관의 ESG 경영 촉진
16:45~16:55	Wrap up	윤동열 대한경영학회 회장
16:55~		폐 회

※ 프로그램은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인사말



김덕현
이투데이 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이투데이 대표이사 김덕현입니다.

비백신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이투데이 ESG포럼 2023'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행사를 축하해 주기 위해 자리해 주신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포럼 진행을 맡아 주신 윤동열 대한경영학회 회장님과 패널로 참석해 주신 박세환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님, 강성부 KCGI 대표이사님, 나수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님,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이사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은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핵심지표가 됐습니다.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은 ESG경영을 주요 투자대상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ESG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자 금융자본을 중심으로 한 자구책 중 하나입니다. 국제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ISSB),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비재무적 정보공시를 의무화하고,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법인의 ESG 공시를 의무화 했습니다.

ESG는 기업의 의무이지만 정부도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독일에선 지난해 6월부터 3개월 동안 모든 지역의 기차, 지하철, 트램, 버스를 초저가에 이용할 수 있는 9유로티켓 정책을 통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기간 520만 명이 넘는 시민이 9유로티켓을 구매해 자동차 이용 감소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80만 톤이나 줄었고 대기오염 수준도 최대 7% 감소했다는 포츠담대학교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속가능사회를 위해 지방정부가 나선 사례도 있습니다. 브라질의 쿠리치바와 벨루오리존치 두 도시는 지역 사회 텃밭을 도시 전역에 146개를 조성해 수많은 시민이 직접 영농 활동을 해 세계 최초로 시민의 식량권을 인정한 도시가 됐습니다.

여기서 수확한 농산물은 자신들이 먹기도 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기부에 쓰여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만들었습니다. 대기업은 중심으로 ESG경영을 외치고 있지만, 개선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ESG 관련 국제기구, 국제표준, 평가지표를 통일화 해야 합니다. 국내도 61개 항목으로 구성된 K-ESG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기업은 국내 평가지표보다 강화된 평가기준이 적용되지만, 정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또 ESG경영을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와 이해관계자 간의 이익 충돌로 혼선을 겪기도 합니다. ESG경영의 전도사로 유명한 프랑스 최대 식품기업인 다농그룹 CEO 에마누엘 파베르 회장의 지난해 해임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파베르 회장은 2014년부터 탄소 저감체제를 도입하고 탄소조정 주당 순이익제도를 시행했지만 2020년 다농 매출이 10%, 주가는 30% 하락해 결국 지난해 3월 해임됐습니다.

이처럼 ESG경영은 기업의 노력에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사회적 공감대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이번 포럼이 기업과 우리사회에 ESG경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산시키고, 정부 정책에 초석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내외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정부 1차관 방기선입니다.

올해 세 번째를 맞이하는 이투데이 「ESG 포럼 2023」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초청해주신 김덕현 이투데이 대표님과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에게 생소하던 ESG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한층 강화되고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의 ESG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작년까지 공시제도 개선, 중소기업 경영 지원 등을 포함하는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두차례에 걸쳐 마련한 바 있으며, 민간과의 긴밀한 소통과 범정부차원의 정책 추진을 위해 컨트롤타워인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를 설립해 금년 2월에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ESG는 크게 ESG 경영과 ESG 투자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ESG 경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자면, 지난 2월에 개최한 1차 협의회에서 업계와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니, 올해 우리 기업의 최대 현안은 공급망 실사와 ESG 의무공시라고 하였습니다.

최근 EU 집행위원인 디디에 레인더스1)가 방한하여 국회 강연회 등을 통해 소개한 바와 같이 EU의 공급망 실사는 금년 중에 확정될 예정이며, 협력업체까지 실사 의무를 부과하여 우리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 발표예정인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ESG 공시 국제표준은 협력업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간접배출량을 포함하여 Scope 32)까지 공시하도록 규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금년 중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지수 개발·연기금 등 공공부문 선도를 통해 민간 ESG 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ESG가 2050 탄소중립과 맞물려서 국제사회의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기업이 ESG를 적극 활용한다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며 기업의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을 넘어 ESG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이 우리나라 ESG 발전을 위한 유익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Session1

박세환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 국가회계자문위원회 위원
- 코스닥 회계자문위원회 위원



Session2

나수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창업벤처연구실 연구위원



Session3

강성부 KCGI 대표이사

- LK 투자파트너스 대표이사
-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채권분석 팀장



Session4

윤동열 대한경영학회 회장

- 現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現 건국대학교 ESG 지원단장

Moderator



Session5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

- 일자리위원회 사회적경제 전문위원회 전문위원
- 국무총리 표창

이투데이 ESG포럼 2023

“민간 ESG 생태계 조성 방안”

이투데이
프리미엄 경제신문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는
ESG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